

# 낯선상황의 애착유형분류에 관한 일 연구

##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Attachment on the Strange Situatio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박응임

교수 박성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Doctoral Student : Ung Im Park

Professor : Seong Yeon Park

###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고찰	V. 결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 〈Abstract〉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attachment on the Strange Situation was conducted. 55 infants(27 boys and 28 girls), whose attachment to mothers, were assessed in the Strange Situation when they were 14 to 20 months old. The analysis was made according to Ainsworth's classificatory system as well as Main & Solomon'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43 infants were identified as secure attachment (Group B), 9 infants as insecure-avoidant(Group A), and 1 infant as insecure-resistant (Group C). There were 2 infants identified as insecure-disorganized/disoriented(Group D). In the sub-classification, Group B infants were classified into B<sub>1</sub>(14 infants), B<sub>2</sub> (11 infants), and B<sub>3</sub>(18 infants). Group A infants were classified into 8 A<sub>1</sub>s and 1 A<sub>2</sub>. The Group C infant was identified as C<sub>1</sub>. No C<sub>2</sub> and B<sub>4</sub> were found. Finally because of the majority of infants as Group B, the association between sub-classifications and infant's sex and month was examined. The result indicated no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the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애착이란 한 개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로 그들을 공간적으로 결속시키고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것으로 부모와 어린자녀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을 언급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애착이란 개념은 인간의 발달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성을 지닌다. 그 첫째 이유로 애착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출생시에 다른 동물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므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장기간의 부모 혹은 대리양육자의 보호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부모의 양육적인 행동은 단지 부모에게서 일방향적으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영아가 부모에게 보이는 상호 호혜적인 행동 즉, 애착행동에 의해 유지되어진다(Ainsworth, 1982). 두번째 이유는 생의 초기에 형성하는 안정된 애착이 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는데 안정하게 애착된 유아는 불안정하게 애착된 유아에 비해 낯선 또래들이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며, 자유놀이 상황에서도 탐색행동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타나며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다(Hazen & Durrett, 1982; Matas, Arend, Sroufe, 1978; 고경애, 1984). 이외에도 애착이 지니는 중요성은 성인기에서도 나타난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의 경우 자아회복력이 더 강하고 덜 불안해하며 동료들로부터 덜 적대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Kobak & Sceery, 1988). 그리고 부부생활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은 성인들이 결혼만족도도 더 높고 자녀양육에서도 어린시절의 안정된 애착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icks, 1985).

이처럼 애착이란 전생애에 걸쳐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아기에 주양육자가 되는 어머니와 형성하는 애착은 영아의 발달단계적 특성이나 영아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어떤 애착관계보다도 더 많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자녀의 실제적인 양육이 어머니에게 대부분 전담되어지고 있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비중이 더 크기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양적인 면에서도 소수에 불과하고 질적으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외연구의 경우, 영아의 애착측정은 Ainsworth(1978)의 낯선상황이라는 과학적인 실험방법이 일찍이 개발되어 대부분 이를 실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연구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와같은 직접적인 실험실상황에서의 관찰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이를 변형하여 질문지 혹은 어머니와의 면담등으로 애착을 측정하므로인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고경애, 1984; 박은숙, 1983; 송지연, 1989).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는 애착과 탐색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유효순(1985)의 연구가 시초였는데 연구결과에서 Ainsworth의 애착유형분류가 영아의 탐색행동을 제대로 예측해주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통해 애착유형을 새로이 집단화시켜 분석하면서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중순(1989) 역시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낯선상황 실험을 통하여 애착과 다른 발달적 특성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애착을 애착행동의 점수만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영아들의 애착의 특성을 밝히는데 부족함이 있으며 연구자도 다양한 차원의 애착행동유형으로 살펴보는 심층적 연구가 뒤따라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한 이영환(1992, 1993)의 연구는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영아기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연구대상이 영아와 그들의 아버지였다는 점에서 영아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에 앞서 행해졌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영아가 어머니와 사이에서 형성시키는 애착의 성격을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사용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Ainsworth의 낮선상황검사를 사용하여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할 경우, 애착유형분류시에 제기되는 몇몇 문제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insworth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애착유형은 크게 A, B, C 세가지로 구분되어진다. 그러나 이 측정 도구들을 사용한 여러 국외 연구들에서 기존의 분류 형태로는 잘 구분하기 힘든 또 다른 형태의 애착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여 왔다(Crittenden, 1985; Lyons-Ruth et al, 1987; Main & Cassidy, 1988; Main & Solomon, 1990). 이런 맥락에서 새로 나타난 애착유형이 불안정애착의 한 형태인 D유형이라 불리는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이다. 실제로 A, B, C, D 유형의 애착분류를 사용한 연구결과 등에 의하면 이전처럼 A, B, C의 세가지 유형으로 애착을 분류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고, 새로이 제시된 D유형의 애착을 포함시켜 연구했을 때 훨씬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Carlson, Cicchetti, Barnett, & Braunwald, 1989; Main & Solomon, 1990). 하지만 국내의 영아기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가 기존의 A, B, C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런 점을 보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더불어 애착의 유형분류에서 많은 연구들이 애착유형을 Ainsworth가 제시한 A, B, C로 분류하는 대분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같은 유형별 집단내에서 영아들이 나타내는 행동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Cummings, 1990; Easterbrooks & Lamb, 1979; Main et. al., 1985). 그러므로 애착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하위 집단으로 분류해 내는 것이 요구되어진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nsworth의 낮선상황검사를 사용하여 애착을 연구함으로써 낮선상황검사가 우리나라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연구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과연 새로운 애착유형인 D유형이 우리나라 영아에게서도 실제로 나타나는가를 검증하며, 애착을 하위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연구에서 나타나 결

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의 특성을 질적으로 탐색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낮선상황에서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유형은 크게 A, B, C, D유형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어지는가?

연구문제 2 : 영아의 애착유형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할 때 우리나라 영아들의 애착유형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 애착유형의 하위집단들은 영아의 성과 월령에 차이를 나타내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낮선상황의 새로운 애착분류체계

Ainsworth는 동물행동학적/행동통제체계이론에 기초를 두고 영아의 애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때 영아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중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험실 상황에서 행해지는 낮선상황을 고안하였다. 낮선상황이란 장난감이 있는 실험실에서 영아가 부모와의 격리 및 재결합, 낯선이의 출현에 대하여 나타내는 행동들을 측정하여 영아의 애착을 평가하는 구조화된 관찰상황이다. 낮선상황에서는 약 30초가 소요되는 도입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3분으로 된 7개의 장면(episode)을 합쳐 총 8개의 장면으로 구성된다. 이는 점차적으로 영아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의 양을 증가시켜서 영아가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에서 애착인물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조직화해가는가를 관찰할 수 있도록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부모와의 재결합시 영아가 나타내는 반응들은 Ainsworth에 의해 개발된 방법들에 따라 점수화된다. 여기에는 접촉추구, 접촉유지, 회피, 저항, 찾기, 그리고 원거리 상호작용 등 6가지 행동에 대한 각각의 점수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관찰된 영아들은 크

계 세가지 애착집단으로 분류되어지는데 애착대상에 대해 안정된 애착을 나타내는 B유형과 불안정-회피적 특성을 나타내는 A유형 그리고 불안정 저항적 특성을 나타내는 C유형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Ainsworth et. al., 1978).

이와같은 Ainsworth의 낯선상황은 개발된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거듭하면서 한가지 어려운 상황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즉,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A, B, C체계로 애착을 분류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Calson, Cicchetti, Barnett & Braunwald, 1989; Main & Cassidy, 1988; Main & Solomon, 1990). 그리하여 기존의 세가지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지지 않는 피험자들을 다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이들이 보이는 특성은 낯선상황에서 나타나는 영아들의 행동이 뚜렷한 목표없이 행동하고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적인 행동패턴을 동시에 나타내고 순간적인 일련의 무질서 등이었다. 따라서 Main과 Solomon (1990)은 이들을 비조직적/비일관적애착으로 명명하였으며 간단히 D유형으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Main과 Solomon(1990)은 이전의 A, B, C 분류체계를 사용한 낯선상황에서 얻어진 녹화테이프를 수집하여 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 268쌍의 피험자 중 12.7%에 달하는 34명의 영아가 비조직적/비일관적애착으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의 애착유형 분류에서 34명중 21명(62%)이 '안정애착'으로 구분되어졌고 8명(23%)는 '불안정-저항애착'으로 그리고 5명(15%)은 '불안정-회피'로 분류되어졌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Ainsworth의 전통적인 애착유형분류가 연구의 결과를 일관적으로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동시에 왜곡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D유형이 낯선상황검사의 애착분류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arlson과 그의 동료들(1989)은 아동학대와 방임과 같은 전형적인 maltreatment의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 22쌍과 그렇지 않은 21쌍의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새로운 애착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애착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대받은 경험이 없는 비교집단

에서는 단지 19%만이 비조직적/비일관적애착으로 분류된 반면 maltreatment 집단에서는 82%를 차지하는 18명이 비조직적/비일관적애착으로 판명되었다.

Lyons-Ruth와 그의 동료들(198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2개월에 실시한 낯선상황에서 학대 영아 중 25%가 D애착을 보였고, 18개월에 실시된 추후 연구에서도 이들이 계속 가정중심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maltreated 영아의 38%가 D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자는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애착측정도구로 사용할 때, 애착분류체계에서 D유형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만 훨씬 더 타당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

## 2. 애착유형의 하위집단별 특성

Ainsworth 등(1978)은 그들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낯선상황을 통한 애착실험결과를 분석할 때 애착유형을 A, B, C로 분류하는 것에 덧붙여 이를 다시 하위집단(A<sub>1</sub>, A<sub>2</sub>/ B<sub>1</sub>, B<sub>2</sub>, B<sub>3</sub>, B<sub>4</sub>/ C<sub>1</sub>, C<sub>2</sub>)으로 분류하는데 대한 지침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하위집단으로 분류해야만 하는 이유를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애착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같은 대집단에 속하지만 이를 다시 세분하면 다른 하위의 집단에 속하게 되는 영아들은 발달과정에서 각기 다른 종류의 경험을 가졌었다. 그리고 이것이 애착인물과의 상호작용형태를 다르게 만들어 나가며,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애착관계를 형성시킬 것이라고 한다. 즉, 비록 큰줄기에서는 안정 혹은 불안정애착 등으로 공통점을 지니지만 다른 하위집단으로 분류되어지는 영아들간의 애착의 성격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insworth 등(1978)이 분류준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애착유형의 특성을 보면, 안정애착집단은 재결합 장면에서 어머니와의 접촉 혹은 상호작용을 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이를 각 하위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씩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먼

저, B<sub>1</sub>에 속하는 영아들은 격리장면에서 불안을 거의 나타내지 않고 재결합시 특별히 신체적으로 접촉하기 보다는 떨어져서 상호작용하는데 강한 주도성을 나타낸다. B<sub>2</sub>의 영아들 역시 격리시 거의 불안해하지 않으며 재결합장면에서 B<sub>1</sub>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많이 접근하려하나 B<sub>3</sub>보다는 접촉추구나 접촉유지를 덜 나타낸다. B<sub>3</sub>의 영아들은 격리시 불안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부분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을 분명히 추구하며 접촉을 이루면 계속 유지하려는 특징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B<sub>4</sub>에 속한 영아들은 재결합시 어머니와의 접촉을 원하나 이런 행동들이 B<sub>3</sub>보다 덜 유능하다. 그리고 부적절한 몸짓과 동작 등의 이상한 신호들을 나타내고, 어머니에게 약간의 저항과 회피를 나타내며 접근하는 양가감정적인 인상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와의 재결합시 어머니와의 접촉, 접근 혹은 상호작용을 분명히 회피하는 불안정-회피집단은 A<sub>1</sub>과 A<sub>2</sub>로 나뉘어지는데 A<sub>1</sub>의 영아들은 재결합시 어머니를 분명히 회피하며 어머니가 안아주면 접촉을 유지하려하지 않고 눈길을 돌리거나 내리려고 몸부림친다. A<sub>2</sub>의 영아들은 재결합시 어머니에게 혼합된 반응을 보이는데 반기면서 접근하려다 어머니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와같은 접근추구는 강한 접근회피와 함께 나타난다.

불안정-저항집단은 재결합시 어머니와 접촉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은 보이나 양가감정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일반적으로 낮선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다른 집단의 영아보다 더 많이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하위집단인 C<sub>1</sub>은 재결합장면에서 접촉추구와 접촉유지가 강하나 저항행동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격리장면에서 심하게 불안해 한다. 이에 비해 C<sub>2</sub>의 영아들은 분명한 저항보다는 항의하는 경향을 보이며 낮선상황 전체에서 탐색행동이 제한되어있고 상호작용행동은 활발한 주도성이 부족하며 이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수동성이다.

Easterbrooks와 Lamb(1979)의 연구에서도 하위집단들간에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즉, 안정애착집단(B집단)의 하위집단인 B<sub>1</sub>과 B<sub>2</sub>의 영아들이 B<sub>3</sub>와 B<sub>4</sub>의 영아들보다 탐색활동에서

더 독립적이고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애착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질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하위집단분류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데 국외에서는 이런 식의 분류체계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Cummings, 1990 ; Easterbrooks & Lamb, 1979 ; Main et. al., 1985). 하지만 국내의 연구들은 낮선상황실험을 통해 애착에 접근한 연구들조차도 거의가 A, B, 그리고 C의 세집단으로 분류하는 대집단분류체계를 적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유효순, 1985 ; 이영환, 1992, 1993). 그러므로 이점을 보완한 연구가 있어야 우리나라 영아들의 애착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밝힐 수 있을것이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Ainsworth의 낮선상황검사는 영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애착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행동들이 6가지(접촉추구, 접촉유지, 회피, 저항, 찾기, 원거리 상호작용) 있다. 10~18개월의 다양한 월령층을 대상으로 한 김중순(1989)의 연구결과, 10~12개월 영아보다 16~18개월의 영아가 접촉추구행동, 접촉유지행동 및 원거리 상호작용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나타냈다고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아기의 애착연구를 위해서는 12개월 이전의 영아보다 영아가 애착대상에 대한 애착행동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는 12개월 이후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찰과 분석에 있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영아의 월령을 16~18개월에 제한하였으나 연구표집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오차를 두어 전체적으로 14~20개월의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월령의 영아가 있는 가정을 동사무소 혹은 기타 기관의 협조하에 소개받아 일단 연구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총 250통 발송하였다.

편지 발송 후 일주일 뒤에 각 가정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연구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 중 55쌍의 영아-어머니만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월령은 16.5개월이었으며, 이 중 남아가 27명 여아가 28명이었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29.3세였고 교육정도는 대학교 이상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졸이 20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중학교졸이었다.

## 2. 연구절차

### 1) 예비실험

본 연구를 위한 예비실험은 무선표집하여 선정된 6명의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낯선상황은 Ainsworth에 의해 제시된 대로 약 30초가 소요되는 도입부분에서 부터 시작하여 3분으로 된 7개의 장면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우선 3명의 영아를 실험해 본 결과, 모든 영아가 혼자만 남게 되는 상황인 6장면에서 너무 심하게 울고 불안해하여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6장면을 빼고 7개의 장면으로 낯선상황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각 장면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실험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영아와 어머니들에게는

너무 길다고 여겨져 어머니와 낯선이와 함께 있는 3장면과 8장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4장면들은 각각 2분으로 단축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영아의 애착을 연구한 유효순(1985), 김종순(1989), 그리고 이영환(1992, 1993)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영아들에게는 부적당한 것으로 여겨져 6장면을 삭제하였으며, 이영환(1993)도 역시 시간단축의 필요성을 느껴 실험시간을 조정한 바 있다.

이밖에도 실험실내의 물리적 상황에서도 약간의 변경이 요구되어졌는데 원래 Ainsworth의 낯선상황에서는 영아, 어머니, 그리고 낯선이 모두를 위해 각각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예비실험과정에서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권에는 이색하다고 여겨져서 영아의 자리에는 의자대신 카페트를 깔고 그 위에 장난감을 배치하였으며, 어머니와 낯선이를 위해서는 의자 대신 방석이 제공되어졌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행동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는 과정에서 영아의 관심이 카메라에 쏠려 실험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실험실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 뒤에서 영아의 행동을 촬영하였다. 그 결과 영아는 카메라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였으며 실험에 장애가 되지 않았으므로 본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1〉 낯선상황의 장면별 요약

장면	시간	행 동 기 술
1	30초	연구자가 어머니와 영아를 실험실로 안내하고 나간다.
2	2분	어머니는 영아를 혼자서 놀게 하고 영아가 먼저 상호작용을 원할때만 반응한다.
3	3분	낯선이가 들어와 가만히 앉아있다가 1분이 지나면 어머니에게 밥을 건넨다(1분). 마지막 1분 동안 낯선이는 영아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돌아주고 3분이 되면 어머니는 조용히 밖으로 나간다.
4	2분	낯선이는 영아에게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고 영아가 원할 때만 응한다
5	2분	어머니는 영아의 이름을 부르며 방으로 들어온다(낯선이 나감). 영아가 접촉을 원하면 편안하게 해준 뒤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한다. 2분이 되면 어머니는 밖으로 나간다.
7	2분	낯선이는 들어와서 4장면에서와 같이 행동한다. 영아가 울면 달래줄 수 있다.
8	3분	어머니는 영아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고(낯선이 나감) 영아가 원하면 안아준다.

2) 본실험

(1) 낮선상황절차

예비실험을 거쳐 수정된 Ainsworth의 낮선상황이 영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졌으며 그 절차는 <표 1>과 같다.

영아의 어머니에게는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낮선상황 절차에 대한 소개와 실험시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간단한 지침을 전달하고 난 다음 실험에 응하게 하였다. 실험의 전 상황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2) 실험실의 물리적 상황

실험실(크기-가로 3m×세로 4m)의 물리적 상황은 <그림 1>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비디오촬영은 칸막이 뒤에서 이루어졌는데 영아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포착하기 위해 칸막이의 곳곳에 촬영이 가능하도록 카메라의 렌즈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내었다.

높이기 위하여 처음에는 모두 함께 점수화 과정에 참여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video 테이프를 반복 관찰하면서 훈련하였다. 그후 관찰자 각자가 독립적으로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점수화 과정에서 관찰자들간의 신뢰도는 .914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과정에서는 1단계의 점수화 과정에서 얻어진 점수를 근거로 해서 Ainsworth 등(1978)이 제시한 애착분류준거에 따라 영아들을 8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재결합장면에서의 영아의 행동이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는 하나 전체적인 맥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6개의 전장면(1장면은 도입장면이므로 제외)에 걸친 영아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이에 덧붙여 앞서의 8개의 하위집단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영아를 분류하기 위해 Main과 Solomon(1990)의 D유형에 대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유형분류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자들간의 훈련을 거쳤으며 이후 각 각의 관찰자들이 따로 유형분석과정에 임하였다. 유형분류에서 나타난 관찰자들간의 신뢰도는 .946이었으며, 유형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경

창	분
---	---

〈표 2〉 애착유형의 대집단분류

애착유형	사 례 수	백 분 율
불안-회피(A)	9	16.4
안정애착(B)	43	78.2
불안-저항(C)	1	1.8
비조직적-비고정적(D)	2	3.6
전 체	55(명)	100.0%

가 D유형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나머지 세가지의 애착유형도 모두 발견되었다. 유형별 분포도에서 안정애착이 78.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안-회피애착이 많았고 불안-저항애착은 한명의 영아에게서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안정애착이 66%, 불안-회피애착이 22%, 불안저항애착이 12%의 분포를 보이는 Ainsworth등(1978)의 연구와 비교하면 비록 백분율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안정애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불안-저항애착이 가장 적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유효순(1985)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65명의 피험자중 안정애착이 36명, 불안정 회피애착이 19명으로 나타났고 불안정-저항애착이 10명으로 가장 적었다.

D유형의 경우 2명의 영아에게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D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학대부모 혹은 위험이 높은 집단 등의 특수 집단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가 모두 살아 있고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집단들에서 선정되었으므로 이와같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2. 애착유형의 하위집단분류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하위집단분류는 다음 〈표 3〉과 같다.

안정애착집단의 경우 B<sub>4</sub>를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골고루 발견되었다. 하지만 불안정애착집단에서는 회피애착의 하위집단인 A<sub>1</sub>이 8명인데 반해 A<sub>2</sub>가 단 한명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저항애착의 경우도 하위집단분류에서 C<sub>1</sub>으로 밝혀졌다. 참고적으로 비조직적/미일관적 애착인 D집단의 경우 별도의 하위집단분류가 없었다.

각 하위집단 유형별로 영아들의 전반적인 행동특성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Ainsworth 등(1978)의 행동특성과 일치하였으며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안정애착의 하위집단인 B<sub>1</sub>, B<sub>2</sub>, 그리고 B<sub>3</sub>의 경우 어머니와의 격리상황에서 불안의 정도와 반비례하여 탐색활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B<sub>1</sub>에 속한 영아들은 격리상황에서 전혀 불안해 하지 않고 탐색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하는 편이며 낯선이와도 활발한 원거리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피험자가 많았다. B<sub>2</sub> 집단의 영아들은 B<sub>1</sub>보다는 격리상황에서 약간 더 불안을 나타내는 피험자가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서 그리 심하게 불안해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탐색활동은 B<sub>1</sub>보다는 덜 활발하였지만 B<sub>3</sub>에 비해서는 훨씬 활발한 편이었다. B<sub>3</sub>집단의 영아들은 격리상황에서 심하게 불안해하며 낯선이와 상호작용하려 하지 않고 탐색활동도 매우 적게 나타내며 대개는 심하게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다.

〈표 3〉 애착유형의 하위집단분류

애착유형	A <sub>1</sub>	A <sub>2</sub>	B <sub>1</sub>	B <sub>2</sub>	B <sub>3</sub>	B <sub>4</sub>	C <sub>1</sub>	C <sub>2</sub>	D	전체
사 례 수	8	1	14	11	18		1		2	55(명)
백 분 율	14.5	1.8	25.5	20.0	32.7	-	1.8	-	3.6	100(%)



3. 성과 월령에 따른 하위집단차이

〈표 5〉 하위집단 유형에 따른 영아의 월령

연구문제 3은 앞에서 제시된 연구문제 1, 2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불안정 애착집단인 A와 C 그리고 D유형에서는 각 하위집단에 분포된 피험자의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따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참고적으로 A<sub>1</sub>의 경우, 남아가 3명 여아가 5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B유형의 경우 애착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류되어졌으므로 과연 이들 하위집단들 간에 영아의 성과 월령이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하위 집단	N	영아의 월령		
		M(SD)	F	P
B <sub>1</sub>	14	17.36(2.53)	1.96	.154
B <sub>2</sub>	11	16.18(2.56)		
B <sub>3</sub>	18	15.83(1.65)		

영아의 성에 따라 하위집단 유형에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그 결과 이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V. 요약 및 논의

우리나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연구함에 있어서 애착의 성격을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 애착유형 분류체계의 새로운 접근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시도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한 바와 같이 새로운 애착유형 분류체계가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성별X하위집단유형의 분할표

유형 성	B <sub>1</sub>	B <sub>2</sub>	B <sub>3</sub>	계
남	8(18.6%)	7(16.3%)	8(18.6%)	23(53.5%)
여	6(14.0%)	4(9.3%)	10(23.3%)	20(46.5%)
계	14(32.6%)	11(25.6%)	18(41.9%)	43(100%)

$\chi^2 = 1.12$      $df = 2$      $p = .570$

않았다. 이것은 영아들이 각기 다른 하위집단으로 분류되는데는 영아의 성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유형을 A, B, C, D의 대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 네가지 유형은 모두 발견되어졌다. 사실상 여기서 연구자의 초점은 과연 우리나라의 영아들에게서도 비조직적이고 비밀관적인 형태의 애착인 D유형이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었다. 비록 전체 55명의 영아중 3.6%를 차지하는 2명의 영아만이 D유형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D유형은 영아의 다양한 애착유형에 실제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분류체계에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D유형이 10%이상을 나타내는 국외의 다른 연구(Carlson, et.al., 1989; Lyons-Ruth et. al., 1987; Main & Solomon, 1990)들에 비해 본 연구에서 D유형의 비율이 비교적 저조한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가정되어진다. 먼저, 국외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D유형의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유형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 혹은 학대집단을 연구대상에 많이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경우 대개의 영아들이 정상적인 가정에 속해 있다고 여겨지므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집단유형별로 영아의 월령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음으로 문화적 차이점을 들 수 있다. Carlson등(1989)은 maltreated 집단과 비교한 정상집단에서도

영아의 평균월령은 B<sub>1</sub>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B<sub>2</sub>집단 그리고 B<sub>3</sub>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하위집단 유형에 따라 영아의 월령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D유형이 19%나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D유형이 전체의 3.6%에 그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크다. 이와같은 차이점은 우리나라 경우, 대개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어린 영아를 혼자 내버려두기 보다는 항상 곁에서 지켜보며 하루종일 영아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허용적으로 받아주면서 양육하기보다는 자녀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자녀를 다른 방에 재우고 비교적 신체적으로 떨어져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런 차이가 영아에게 각기 다른 정서적 분리감을 경험하게 하며 그에 따라 D유형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사려되어진다. 안정애착 집단인 B유형의 비율이 78%로 국외의 다른 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분포도를 나타낸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비교문화적으로 애착의 유형에 대한 meta-analysis를 실시하여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낯선 상황에서 얻어진 영아의 애착유형의 분포가 약간씩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한 IJzendoorn과 Kroonenberg (1988)의 연구결과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앞서의 애착유형의 대집단 분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영아의 경우 어머니에게 형성하는 애착의 유형이 안정애착으로 편중되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영아들의 애착특성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내기 위해서는 하위집단 분류가 필수적이었다. 그 결과 영아의 애착유형은 안정애착의 하위집단인 B<sub>4</sub>와 불안-저항애착의 하위집단인 C<sub>2</sub>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위유형들(A<sub>1</sub>, A<sub>2</sub>, B<sub>1</sub>, B<sub>2</sub>, B<sub>3</sub>, C<sub>1</sub>, D)로 분류되어짐을 확인하였다. 안정애착 집단의 경우 영아들이 B<sub>1</sub>, B<sub>2</sub>, B<sub>3</sub>의 세 집단으로 끌고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영아들이 어머니에게 안정되게 애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안정된 애착의 구체적인 행동특성은 상이하며 우리나라처럼 안정애착이 지배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이들 하위집단별로 애착과 관련된 기타 다른 연구 변인들을 (예-어머니의 양육태도, 영아의 발달적 특성들) 검증해 보는 것이 어머니와 영

아관계의 특성을 밝히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이라 예견되어진다.

안정애착에서 B<sub>4</sub>의 하위집단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지 않은가 하고 생각되어진다. 즉, Ainsworth 등(1978)이 제시하고 있는 B<sub>4</sub>집단에 대한 준거를 보면 영아의 행동은 비교적 양가감정적이며 모순된 특성을 나타내어 실제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모호성을 띠고 있는데 이를 안정애착이라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었으며 Main과 Solomon (1990)이 제시한 D유형에 대한 상세한 지침들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sub>4</sub>집단으로 나타난 영아는 한명도 없었으며 대신에 2명의 D유형의 영아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 집단의 하위유형 분류에서는 B<sub>4</sub>를 빼고 대신에 비조직적/비일관적인 애착집단인 D유형을 대집단 분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애착연구에서 훨씬 타당한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하위집단 C<sub>2</sub>의 경우 한명의 영아에게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불안회피 애착의 하위집단 분류에서 A<sub>1</sub>유형은 8명인데 비해 A<sub>2</sub> 유형은 단 한명이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Ainsworth 등(1978)에 의하면 A<sub>2</sub>와 C<sub>2</sub>는 각각 회피와 저항적으로 불안하게 어머니에게 애착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이런 특성들이 A<sub>1</sub>와 C<sub>1</sub>에 비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안정하게 애착한 영아의 경우 뚜렷한 회피 혹은 저항으로 구분되어지며 A<sub>2</sub>와 C<sub>2</sub>에서처럼 양가감정적이며 불분명한 형태로 애착되어지는 경향이 적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애착의 하위집단 유형들이 영아의 성이나 월령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안정애착 집단의 하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영아의 성과 하위유형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또한 하위유형에 따라 영아의 월령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영아의 성이나 월령이 각각의 하위집단으로 영아들이 분류되어지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어머니의 양육태도 혹은 영아의 기질 등 다른 변인들이 더 많이 관련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위에서 밝혀진 결과와 논의들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면, 우리나라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을 연구함에 있어서 애착의 성격을 알아내기 위해 Ainsworth의 낮선상황을 채택하여 애착을 측정해 내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동시에 애착유형 분류체계에 Ainsworth등(1978)이 제시한 기존의 A, B, C 유형에 덧붙여 D유형을 도입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며 또한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림에 있어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은 연구대상의 수가 55쌍으로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에 대한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애착유형분류체계를 도입한 연구들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아의 애착유형은 영아의 성 혹은 월령과는 독립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므로, 다른 어떤 변인들이 영아들마다 다른 유형의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진다. 여기에는 영아의 애착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영아의 특성인 기질과 어머니의 특성인 양육행동의 민감성, maltreatment의 정도,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그리고 영아가 속한 가족 환경의 특성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 싶은 것은 영아의 애착은 단시일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부터 지속적인 경험의 역사를 거쳐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애착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밝혀 내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행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 【참 고 문 헌】

- 1) 고경애,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 김종순,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영속성 보존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3) 박은숙, 어머니의 양육차원이 한국유아의 낮가림, 격리불안 및 대물애착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4) 송지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애착 및 물체영속성 개념발달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5) 유효순,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6) 이영환, 낮선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관한 사례 연구, 아동학회지, 13권 2호, 1992, 5-14.
- 7) 이영환, 낮선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8) Ainsworth, M. D. S.,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J. Belsky(ed.), In The Beginning - Readings on Infancy, 1982, N.Y.: Columbia Univ. Press, 1982, 135-143.
- 9)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1978.
- 10) Carlson, V., Cicchetti, D., Barnett, D. & Braunwald, K., 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relationships in maltreate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989, 525-531.
- 11) Crittenden, P. M., Maltreated Infants: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1), 1985, 85-96.
- 12) Cummings, E. M., Classification of attachment on a continuum of Felt Securit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311-338.
- 13) Easterbrooks, M. A. & Lamb, M. E.,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nfant competence in initial encounter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50, 1979, 380-387.
- 14) Hazen, N. L. & Durrett, M. E., Relationship of

- security of attachment to exploration and cognitive mapping abilities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82, 751-759.
- 15) IJzendoorn, M. H. & Kroonenberg, P. M.,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988, 147-156.
- 16) Kobak, R. R. & Sceery, A.,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988, 135-146.
- 17) Lyons-Ruth, K., Connell, D., Zoll, D. & Stahl, J., Infants at social risk: Relationships among infant maltreatment, maternal behavior and infan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987, 223-232.
- 18) Main, M. & Cassidy, J.,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6: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988, 415-426.
- 19) Main, M., Kaplan, N. & Cassidy, J. C.,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985, 60-104.
- 20) Main, M. & Solomon, J.,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121-160.
- 21)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1978, 547-556.
- 22) Ricks, M. H.,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s,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985, 211-227.